

지역 매 아리

김제시 환경과, 악취발생

비료제조사업장과 감담회 개최

김제시는 최근 환경과에서 백산면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인 M사의 육가공 공장장과 비료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 민원 해소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업체의 경우 금산면 육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축산물가공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발생시켜왔으며, 지난 9월 28일 악취측정결과 20으로 기준치인 15를 초과하여 개선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제시는 업체 측에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 밀폐와 악취방지시설인 탈취탑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개선이 미흡하여 기준을 다시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제시 관계자는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내 전유기질 비료 제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악취 모니터링과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제조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등 근본적인 악취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덕면 요가교실, 제9회 김제시

평생학습마당에서 최우수상

김제시 성덕면 요가교실(회장 기영애) 회원들은 최근 김제시 시민운동장 잔디광장에서 배움으로 하나되는 정의로운 김제를 테마로 진행된 제9회 김제시 평생학습마당 발표마당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요가교실 회원들은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2개월간 일주일에 2~3번씩의 연습과정을 진행했으며,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함과 나이는 많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발표마당 무대에 올라 박수갈채 속에 요가 공연을 펼쳐 수상대의 최고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영애 회장은 "노년의 함께하는 즐거움을 위해 노력해 준 여러 회원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 공연을 이끌어 준 김정자 요가강사님과 아낌없이 지원해 준 신형순 성덕면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한편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행복한 100세 인생 프로젝트'를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요일 오후3시에는 생활체조교실, 목요일 오후 4시에는 탁구교실, 금요일 오후1시에는 노래교실, 금요일 오후3시에는 요가교실이 펼쳐져 지역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오성한옥마을 최우수상

소양면,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장관상 수상

완주군 소양면 오성한옥마을이 주민 주도의 마을 변화가 가장 뛰어난 마을로 뽑혔다.

완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소양면 오성한옥마을이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만들기 추진의지가 변화한 사례 및 마을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9개 시도에서 예선을 거쳐 선정된 9개 마을이 참여했다.

농촌현장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마을발전계획수립

프로그램으로, 주민이 공무원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 발전계획을 발굴하고 계획화하는 활동이다.

소양면 오성한옥마을은 이러한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변화로 마을공동체가 활기를 찾고 화합을 다졌는지 설명하고, 마을의 자립거리와 숨은 자원을 발굴해 마을의 미래상을 설계하는 과정을 간접하게 그려내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2017년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 2018년 예비마을기업 지정 등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을 단계별로 실현해 온 오성한옥마을의 자립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들을 설명했다.

최우수상을 확정지은 소양면 오성한옥마을의 시상식은 오는 20일 농식품부 주관으로 대전에서 개최되는 2018년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관계자 워크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상식에서 소양 오성한옥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200만원을 수상하게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농촌현장포럼을 마을 활력을 창출하는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포럼을 통해 주민 개개인이 농촌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완주군은 농촌마을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 스스로 행복한 농촌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외국어 자원봉사자 모집

30일까지 신청접수

김제시는 외국어 거주자 증가에 따라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확대하여 언어소통을 통해 외국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마련해 주고 김제시 주최 국제행사 및 국제교류 시 내방자 안내 및 통·번역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외국어자원봉사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김제시 관내에는 현재 70여개의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그동안 외국어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미흡하였으며 이번 외국어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체계적인 인적자원 구성으로 외국어 자원봉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김제시에 거주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외국어 능력을 갖춘 성인이라면 누구나 김제시 시청 행정지원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제시는 서류전형을 거쳐 자원봉사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은 김제시 홈페이지 알림(공지사항)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시에 거주하고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외국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많은 외국어 능력자들이 외국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외국어 활용능력을 도모하는 한편 애환심 고취와 김제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완주군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완주군은 5일 문화회관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의 조현희 강사를 초빙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장당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직장 내에서 필요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년 1회 이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하도록 돼 있으며, 완주군은 우선적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완주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읍면별 이장, 부녀회장 회의와 각종 지역 행사, 관내 기업과 학교, 단체 등에도 체계적으로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장애는 불편일 뿐 편견과 차별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 없다"며 "차이를 존중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만드는데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 나가자"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누에살롱, 창업 예정자 인큐베이팅 역할 톡톡

완주군, 4개월 만에 2천여명 방문... 이달부터 2기팀 전통다식 시작

완주군의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 공간인 팝업 스페이스 '누에살롱'이 문을 연지 4개월 만에 2000여명이 찾는 등 화제성을 올리고 있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은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육성 공모사업으로 옛 잠종연구소 폐관사를 리모델링해 민간중심의 예술적 창작 활동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난 8월 개관했다.

문화예술인과 세프의 창업을 지원하고 시제품을 평가 받을 수 있는 공유경제형 팝업공간으로 예비창업공동체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인큐베이팅을 거쳐 창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7월 시범운영 기간부터 10월 말 까지 2000여명이 찾았다.

특히,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참가한 1기 팀은 우리밀과 완주군의 로컬푸드를 아용한 브런치, 디저트, 핸드드립 커피를 중심으로 독특한 메뉴를 선보여 방문객의 큰 호응과 11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외에도 지역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공예품 제작 체험과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공방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완주군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 공간인 팝업 스페이스 '누에살롱'

또한, 완주문화재단의 '예술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과 연계해 창업아이템에 대한 자문과 지원으로 창업초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달부터 2개월간 운영하는 2기 팀은 한식을 주제로 수제 녹차, 전통다식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음식체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음식창업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전효진 전주대 교수는

"완주군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3개월마다 교체 되는 참여자들의 콘셉트에 맞는 공간 디자인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시설이 지역에 활력을 주는 사회혁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드림스타트 행복나들이 가족문화체험 행사 실시

김제시 드림스타트(여성가족과장 심미란)는 최근 용인 에버랜드 가족나들이 가족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68여명을 대상으로 일상에 벗어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의 갈등과 위기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 증진과 기능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나들이는 경제적·시간적으로 여가활동이 어려운 드림스타트 가족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통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자 마련되었으며,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들은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삼삼오오 자유롭게 동물원·식물원을 관람하며 여유로운 한때를 즐겼다.

김제시 드림스타트 심미란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가족나들이를 통해 '어릴 적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은 아동



정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제시 드림스타트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